

강진 청자축제 '소득형 축제' 자리매김

청자매출액 작년보다 15%↑
체험행사 수익 97% 늘어
축제기간 관람객도 크게 증가

올해로 43회째를 맞은 강진 청자축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민 가계수입과 직결되는 '지역 소득형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11일 강진군에 따르면 '제43회 강진 청자축제'(8월 1~9일) 개최 결과 지난해 대비 청자매출액이 15% 늘고, 체험료 매출액이 97%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올해 축제기간 동안 관요(官窯)와 27개 개인요의 청자매출액은 6억7600여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 증가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특히 개인요의 매출이 지난해 대비 26%나 증가해 뚜렷한 성과를 보였다.

올해 청자매출 증가는 청자 한옥 공동판매장 개장과 개인요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하고 질 높은 제품 공급, 청자 30% 할인 행사 등에 따라 관람객들의 선택권이 많아지고 맞춤형 구매가 가능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레 성형 등 17개의 체험행사는 관람객들의 참여율이 높아 5600만원의 체험료 매출액을 기록, 전년대비 97%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동안 고려청자박물관에서 열린 다양한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



600명 손도장으로 만든 광복 70주년 태극기 강진군 청소년들이 최근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만든 손도장 대형 태극기를 선보이고 있다. 강진군은 '제43회 강진 청자축제' 기간동안 6일동안 관람객 600명의 손도장을 찍은 대형(가로 3m×세로 2m) 손도장 태극기 만들기 퍼포먼스를 실시했다. <강진군 제공>

램, 이벤트 행사도 많은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다.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축제기간 9일 동안 무료개방한 결과 3만7720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지난해 대비 9%가 증가했다. 디지털 체험방식의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을 구 도예문화원에 구축해 고려청자를 첨단과학 기술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체험거리를 제공했다.

청자 재현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화

목가마 요출(窯出=가마에서 구운 도자기를 꺼냄)과 경매도 진행됐다.

총 54점 중에 20점(성공률 37%)이 즉석 경매에 출품됐다. 이 가운데 '청자상감유로수금문매병'이 최고가인 600만원에 낙찰되는 등 전통방식 청자 재현작품에 대한 애호가들의 관심을 끌었다.

이번 축제에서는 민간 요에서 만든 저가의 생활 자기부터 고가의 청자까지 고루 판매됐다. 고가의 작품으로는 영광요의 '청자호랑이문대호' 작품이 1260만원에,

탐진요의 '청자상감국화유로문매병' 작품이 1000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강진군 관계자는 "단순한 행사성 축제가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소득창출형, 주민참여형 축제로 거듭났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해 경제적 파급효과가 컸다"면서 "앞으로 고려청자박물관의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설환경 개선과 보다 다양하고 참신한 스토리와 신기술로 디지털콘텐츠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강진군 성전면 녹향월촌권역 행복한 농촌 만들기 사업 선정

강진군 성전면 녹향월촌권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행복한 농촌 만들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번 사업에는 전국 31개 권역에서 신청해 1차에서 12 권역이 뽑히는데 이어 최종적으로 녹향월촌 권역을 포함한 6개 권역이 선정됐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시행하며 이달 중 공모를 통해 선정된 컨설팅 업체와 KT, SKT 등 정보통신기술 전문가와 협력해 녹향월촌권역인 9개 마을을 연계하는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구축할 예정이다.

군은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들에게 계절·유형별 프로그램 안내와 예약, 홍보문자 발송 등 관광편의 제공은 물론 지역 농림·축산물 판매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광주 양림동에 강진 청자 전시·판매장 운영

강진군-남구청 위·수탁 협약

강진 청자가 광주에서 판매된다. 강진군과 광주 남구청은 지난 10일 남구청 상형실에서 '강·남(康·南) 공동 전시 판매장 위·수탁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영호 남구청장을 비롯해 김명균 빛고을 공예장작촌 대표, 이막동 강진청자 협동조합 대표, 최석현 공예명장, 공예작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은 광주 남구 양림동에 강진청자 협동조합과 광주 빛고을 공예장작촌의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판매장 설치를 위해 마련됐다.

강진과 남구청의 머리글자를 딴 강·남 공동 전시·판매장은 양림동 '늘·헨즈'(hands) 매장 안에 25㎡ 규모로 마련되며, 삼인삼(shop-in-shop) 형태로 운영된다. 이곳은



올해 광주시 공예명장으로 선정된 최석현 나전칠기 명장이 운영 중인 매장이자,

강진군과 광주 남구청은 이곳에서 강진청자 협동조합과 광주 빛고을 공예장작촌 작가들의 작품을 공동 전시하고 판매함으로써 공예작품에 대한 홍보와 경제활성화

를 노리고 있다. 강진지역 작가들의 청자 작품은 전시장에 내입카드를 부착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할 경우 주문·판매가 이뤄지며, 빛고을 공예장작촌 입주 작가들의 공예작품은 주문없이 곧바로 구매할 수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기탁 줄이어

설립 6년만에 장학기금 120억원 모아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기금 기탁 줄이어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9년 7월 31일자로 교육부로부터 장학재단 설립 허가를 받은 이후 군비 출연금과 지역내 유관기관, 독지가, 출향향우인, 공직사회에 이르기까지 기탁행렬이 이어져 6년만에 눈부시게 기금조성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 7월말까지 1년동안 출연금 4억원, 장학사업 구조조정금 4억2000만원, 기탁금 2억원 등 총 10억2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아졌다.

금리 하락에 따른 장학기금 이자 수입 감소로 장학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지역 금융권 유관기관들의 자발적인 기탁행렬이 이어졌다.

이들 장학회(이사장 김성)가 장학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출연금이 전액 적립되는 한편 인재육성 관계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장학업무 수행 노력의 큰 역할을 했다.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는 지난 2009년 7월 설립이후 중·고·대학생 총 698명에게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장학금과 명문고 육성 지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지원, 성적 우수 중학생 관내 고·대학 특지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장학사업에 매년 3억~7억원 이상의 인프라 구축사업에 해오고 있다.

김성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이사장은 "범 군민과 출향 향우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기탁운동을 전개 오는 2017년까지 150억원 기금조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남진새마을금고 이영일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농기센터 사료작물 육성 성과

농진청 축산과학원과 신품종 '그린팜 2' 개발 보급

장흥군과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이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사료작물 신품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군과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은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사료작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신품종을 개발·보급하고 양질의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목초 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연구진은 올해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신품종 종자인 '그린팜 2'를 채종(採種)·돌보이는 성과를 올렸다.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그린팜 2'는 기존 품종에 비해 추위에 강하면서 출수가 빠른 조생종 신품종이다. 사료작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는 조

단밭질(DCP) 함량이 많아 사료가치가 높고, 기호성이 좋으며 습해에도 잘 견디기 때문에 는 재배에 유리하다. 또한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생력이 좋아 여러 번 수확이 가능하며, 방목과 건조, 사일리지 조제 등 용도에 다양하다.

제해신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최근 기상이변과 일부 곡물 수출국가에 바이오 에너지화로 사료작물 가격이 매년 상승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추진한 '목초 신품종 육성 및 이용촉진 연구 사업'은 조사료 자급을 향상과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장성군 북하면 소재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매매

편백, 삼나무 40~50년생 50만주 식재됨
현재재목 가격이 주당 3000원 정도 거래됨

계곡이 깊어서 물이 마르지 않고
공기와 경관이 최상지로
계곡따라 산책로 8km 조성 되어 있음!

면적 107만㎡ 매가 25억
(13.3㎡당 평당 7,700원 정도)

010-6518-7123

상무하늘땅공인중개사

치평동 정현철

상가·건물

- 화정동 1층상가 225㎡ 11.5억(보1.3억 월600만)
- 월산동 2층건물 매 13억5천(보1억 월680만)
- 수암동 4층건물 매 24억(보2.7억 월 1,140만)
- 산정동(축척서거리) 2층건물 매24억(보2억 월1,000만)
- 월계동(첨단) 3층건물 매25억(보2억 월 1,000만)
- 월계동(첨단) 상가건물 매70억(보14억 월3,000만)
- 용봉동 2층 상가건물 매12억(1억1천 월580만 포함)
- 풍암동 4층 상가주택 매 7.2억
- 쌍촌동 4층 상가주택 매 6.9억
- 평동공단 공장 대 1,650㎡, 건 920㎡ 매 11억7천만

대지·전용가능 녹지·전/답

- 충장로4가 중심상업지역 대지 2,270㎡ 매 41억
- 동명동 일반상업지역 대지 1,400㎡ 매 23억
- 화정동 대로변 준주거지역 대지 945㎡ 매 27억
- 마북동 대지 701㎡ 매10억5천만
- 벽진동 1층주거지역 대지 840㎡ 3억5천만
- 북구 용두동 생산녹지 2,600㎡ 매 10억5천(창고, 차고지 적합)
- 수북면 대밭리 4,641㎡ 매 8.4억(전원주택부지 적합)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2,962㎡ 매 1.8억(주말농장적합)
- 무안군 청계면 전원주택부지 882㎡ 매 1.9억
- 화순 청풍면 폐교부지 9,500㎡ 매 4.3억 (요양병원, 전원주택부지, 체험학습장 적합)

광주,전남권 부동산 매도 매수 상담환영

☎ 010-5536-0382

상무 Biz Center

즉시입주가 가능 임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지원합니다.
쾌적한 업무환경과 여유로운 주차,
상무지구에서 가장 저렴한 임대, 관리비,
정직한 공용면적 적용으로
입주업체와 함께 동반성장 하겠습니다.

건물구분	권장업종	면적
1층	은행(ATM), 편의점, 소매점	임대완료
2층		잔여 1201㎡
3층		1629㎡
4층		1267㎡
5층		1400㎡
6층		임대완료
7층		1400㎡
8층	은행, 보험, 증권 기타사무실	1383㎡
9층		잔여 591㎡, 307㎡
10층		1342㎡
11층		1307㎡
12층		임대완료
13층		임대완료
14층		임대완료

상무비즈센터

(구 남영비즈타워)
광주광역시 서구 시민로 103 (치평동 1210-4)

임대관리 010-2633-1100
관리실 : 062)381-5551 FAX : 062)384-5551